

본회 이사.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김정한

서평: 그리스도인의 비전

The Transforming Vision, 리차드 미들튼, 브라이언 왈쉬 지음 / 황영철 역,
IVP

사람은 그것을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지간에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세계관은 신학이나 철학과 같은 사교의 체계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기본적인 인식의 틀이며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세계관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구체화된 문화를 통해서이다.

본서의 저자들은 복미의 기독교가 사회, 문화 속에 구현되지 못한 이유를 기독교적 세계관의 결여로 간주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채택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임을 강조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 문화, 생활 전반에 걸쳐 기독교적 세계관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의 철저한 포괄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이긴 하지만, 삶 그 자체가 엄밀하게 종교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성(聖)과 속(俗)을 분리하여, 예컨대 농업과 예술과 같은 '세속적인' 활동에는 기독교가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이원론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본서는 (1)세계관이란 무엇인가? (2)성경적 세계관 (3)현대의 세계관 (4)성경적 세계관의 적용 등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세계관은 궁극적인 신앙 결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 결단이 우리의 세계관의 윤곽을 정해 준다고 주장하고, 신앙 결단을 다음 네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개인의 해답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1)나는 누구인가? (2)나는 어디에 있는가? (3)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4)그 치료책은 무엇인가?

좋은 세계관은 그 세계관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삶 전체를 열어 주는 삶에 대한 통일적 시각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또한 그것은 현실에 의하여 끊임없는 수정과 순화를 받아들일 태세를 가지고 있는 개방적인 것이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의 세계관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세계관을 판단하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은 인간의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상기한 네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일관성있고 포괄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야웨로부터 다른 모든 피조세계를 개발하고 보존하라는 문화명령의 수행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존재다.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그 권세는 청지기직이라는 특성을 띤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야웨의 궁극적인 주권에 대한 순종 속에서 우리의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란 견지에서 그 답을 제공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만든 신이라도 있어야지, 신이 전혀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에게는 삶의 궁극적인 초점, 곧 지향점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실은 두 가지 뿐인데, 주님을 섬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주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을 선언함으로써 피조세계에 대한 그의 정당한 왕권을 배격하는 것이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야웨의 통치를 거부하고 창조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명의 창조주와 교통이 끊어지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죽음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창조주로부터의 독립선언은 환상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우리는 자율성을 누리는 대신 노예의 왕국을 통치하는 폭군에 매인 종이란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나 성경은 죄악의 문제만을 거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번째 세계관적 질문인 ‘무엇이 치료책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처음 노아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인간 구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하셨음을 보여 준다. 나사렛 선언,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피조세계에 대한 청지기로 복직되었고, 문화명령은 갱신되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구속하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모든 것이 구속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두 개의 시대 사이에 살고 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면서 옛 시대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주를 재창조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인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 제반 현상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복속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자들은 오늘날 교회 내에서 통용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비성경적인 국면을 ‘세계관의 위기’로 보고 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로 보아야 하는 성경적인 이해 대신에 현실을 분리된 두 개의 범주, 곧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영역에 속하는 기도, 예배, 전도만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고 그 외의 모든 활동은 그의 왕국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복음은 애초부터 삶의 한 영역으로만 좌천되고 삶의 나머지 부분은 ‘세상’으로 분류되기 때문

에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한 영역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신들, 즉 '세상'을 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원론은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를 불구로 만들고 포괄적인 기독교 문화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저자들은 이원론의 발전과정, 현대 세속주의적 세계관의 발흥, 우리 시대의 신들을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문화 및 각 학문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의 적용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책 말미의 상세한 주(註)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도서 목록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한 마음과 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전 영역의 주인으로 받아 들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간절한 호소로 요약될 수 있으며,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인 올바른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적 문화를 건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